자연과 하나 되는 인천 송월초등학교

주위를돌아보면사방을둘러싸고있는 높은 콘크리트 건물과 길게 뻗어 있는아스팔트 도로가 삭막함을 느끼게 한다. 이럴 때면 여러수종의 나무와 들꽃이어우러진 자연의 숲이 그리워진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가 숲속의 자연 생태적인 환경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며 교육을 받을 수있으면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도심 속에 울창한 나무와 숲이 어우러진동화속의아름다운학교가있다. 바로왕자와 공주가 살고 있을 것 같은‘ 공원 속의 전원 학교 ’ 인천 송월초등학교가 그곳이다.

자연과 하나 되는 푸른‘ 송월 ’

이학교는경인선의종점인인천역에서 가까운 자유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기차역에서내려자유공원을향하여올라가다 보면 중국화교들의 생활 터전인차이나타운과 팔각정이 있고, 맥아더 장군 동상, 한미 수교 백주년 기념탑, 아름드리 벚꽃나무, 진달래와 목련 등 국립공원에서나 느낄 수있는각양각색의다양한수종을감상할수있다.

학교로들어서면오른쪽언덕으로진입로를 덮고 있는 단풍나무, 왼쪽 울타리를 따라 화사하게 피어 있는 울타리 장미꽃, 그 밑에 옹기종기다정하게 모여 있는 영산홍이 한 눈에 들어온다. 흰색, 분홍색, 붉은색으로화려하게꽃을피웠을지나간 봄을 상상해보니 조금 더 일찍 방문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문을 지나 살짝 언덕길을 내려가다 보면 송월(松月)초등학교를 상징하는 한 그루의 커다란 소나무와 큰 바윗돌이 나타난다. 그 바윗돌에 쓰여 있는‘ 자연과 하나 되는 푸른 송월 에서 이 학교가 얼마나 자연을 아끼고 가꾸며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미루어짐작할수있었다.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교육 환경

이학교는1998년교육부지정시설현대화시범학교로서 30,141㎡의 경사지에 교사를신축하면서경직되고단조로운직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연과 조화를 살리기 위해 곡선의 부드러움을 조화시켜 설계하였다.

건축물의중앙과양끝은돔형식의 공간으로 천장을 높이고 자연 채광을 받아 밝게 하였다. 벽은 유리 블록으로 시공하여 한낮에 햇빛이복도를비칠때는매우 밝고신비스러운느낌마저든다. 또한, 학년별로4개반을구성하는것을기준으로 저학년동, 중학년동, 고학년동과 행정 · 관리동을 ‘ ㅌ 차 형태로 배치하고, 경사지의 특성을 살려 배치함으로써 채광과 조망권을 확보하였다. 각 동별로 이어지는 연결 복도는 시화를전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물의 끝부분에 위치한 돔형 공간은소형 테마 전시관으로살려 세계의여러나라 정보가가득한 세계관, 송월의 식물을 설명해주는 자연관, 역사가 오래된 항구 도시 인천관, 자랑스러운 중구관, 방과 후 학교 놀이터 등으로 꾸며 교육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시청각실은학교 경사지를 이용토록설계하여각종학예회, 방과후학교활동, 졸업식과같은교내행사뿐만아니라 교외 행사에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2005년 4월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 녹색학교 조성 사업 시범학교 로 선정되어교사의동편에동산을조성하였으

며, 교사 주변 수목 정비 등 학교 숲 가꾸기를 추진하였다. 2006년도에는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70여 종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야생 식물 단지 조성과 숲속 야외 교실, 조경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 그 결실로 지금은 소나무, 주목, 스트로보잣나무, 수수꽃다리, 쥐똥나무, 사철나무 등 수목과 야생 식물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다. 특히, 운동장 동쪽 경사로의 개나리꽃, 야외교실의 벚꽃, 학교 곳곳에 심어져 있는 2만여 그루의 영산홍, 서편 담장의 울타리 장미, 저학년동 앞의 아카시아와 찔레꽃, 동쪽 동산의 소나무 밑에 소박하게 피어 있는 도라지꽃, 교문 진입로의 자귀나무와 가을에 한껏 빛을 발하는 단풍나무 등 교정 곳곳에 사시사철 꽃이 피는 아름다운 학교이다.

실외뿐 아니라 실내 또한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각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에는 공기 정화 식물로 이루어진 실내 정원과 모란앵무, 흑문조, 백문조, 카나리아, 금화조, 십자매 등의 새들로 이루어진 새공원을 조성하여 아동들이 교실과 복도에서도 숲 속에 있는 듯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이다.

체육, 과학, 그리고 생태교육에 내실기해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송월을 사랑하는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한마음이 되어 학생들이 특기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를 통하여 학생들은 하루하루를 즐겁고 슬기롭게,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년 간 인천시교육청‘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하고 있다. 학생과 지역 주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송월초등학교는 월드컵과 국내 프로축구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남일 선수를 배출할 정도로 운동부 육성에 열정적이다. 최근에는 여자 양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29회,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양궁부에서 금메달을 딴데 이어 올해 열린 제35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체육 활동에 내실을 기한 결과이다.

그뿐만 아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교재 및 교구의 재배치, 시각적인 효과를 가미한 과학실 환경 정리, 학습 진행에 알맞은 학습 공간 등을 구성하여 과학 꿈나무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최신식 과학실로 시설을 개선하였다, 또한,‘ 늘 푸른 교실 이라는 방과 후 교실을 마련하여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조성, 학생들의 특성과 관심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벌이 학부모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신기종의 컴퓨터와 잘 정비된 시청각기자재를 확보한 컴퓨터실과 음악실, 피아노실, 영어실 등은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 적성 계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이 학교는 자체 교육행사인‘ 학교 공동체의 날 ’ 운영으로 교사에게는 수업 연구 및 수업 공개를 통한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수업 활동 참관은 물론 선생님과의 교육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학교 특색 사업으로 한자 급수제와 실천 ·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주관 제1회 ‘ 아름다운 학교 로 선정되기도 하여 학생들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에서 생활한

야외체험활동.

과학실험학습.

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가 꾸기와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식물 관찰 일기 쓰기, 푸른 숲 선도원 활동, 자유공원 숲 가꾸기 및 환경 정화 활동, 1학급 1화단 가꾸기 활동 등으로 식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키우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워지는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는 말이 이 학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 교육, 자연과 하나 되는 학교라는 장영애 교장 선생님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송월을 가꾸는 모습에서 앞으로 더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할 송월초등학교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즐거움에 취해본다.

정관영
충북교육청 건축사무관(공학박사)